

제주 4·3, 미 정부 관여 증거 찾는다

제주4·3평화재단 미국자료 현지 조사... “책임소재 상부 문서 확보 주력”

제주 4·3의 진실과 미국의 관여여부를 규명할 미국자료 현지조사가 18년만에 다시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김기진(탐장, 전 부산일보 기자), 최시범(성균관대 박사과정), 정준영(고려대 석사)씨 등 3명으로 미국자료 현지조사팀을 구성해 이달 초 미국 현지에 파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또 미국자료 수집지원과 분석을 위해 상근 연구원으로 반영관(미국 일리노이대 박사), 권현규(고려대 석사)씨 등 2명을 채용, 조사·분석작업에 합류한다

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조사연구실(실장 양정심 박사)을 출범시킨 4·3평화재단은 올 상반기에 미국자료 조사팀을 꾸려 국사편찬위원회, 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에 들어온 미국자료 가운데 4·3과 관련성 있는 자료를 추려 목록화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본격적인 미국 현지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미국자료 현지조사는 미국 자료의 보고인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약칭 NARA)을 비롯해 미육군 군사연구소, 맥아더기념관, 의회도서관, 후버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1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이전 본격적인 미국자료 현지 조사는 4·3특별법 제정직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되던 2001년 4·3중앙위원회와 제주도가 합동으로 조사팀 3명을 구성, 6개월 동안 미국 현지에서 실시했다. 따라서 이번 미국자료 현지조사는 18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2001년 당시 조사 때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USAFIK), 주한미군사교문단(PMAG·KMAC) 자료 수집에 비중을 뒀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나 미 국동군사령부(FECOM) 등 명령체계의 상위 기관의 생산 자료까지 확대해 수

집할 계획이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은 “제주4·3의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부단위의 문서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소장 체계가 많이 변화됨에 따라 수집자료의 출처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수정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수집된 미국자료를 분석해 ‘미국문서 자료집’을 펴내는 한편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라면 이번에는 미국 정부나 미 국동군사령부(FECOM) 등 명령체계의 상위 기관의 생산 자료까지 확대해 수

조사윤기자 sycho@ihalla.com

태풍 ‘다나스’ 제주 향해 북상

19일 동쪽으로 급격히 방향 틀어 영향 줄 듯

오늘 최대 80mm 장맛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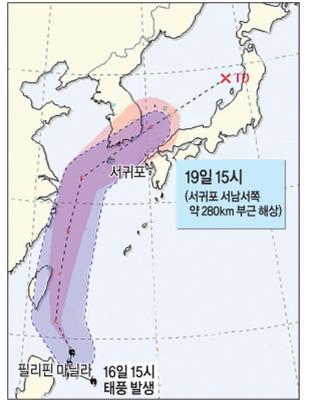
북상중인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제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는 17일 오후 3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북동쪽 약 5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6hPa, 최대풍속 초속 18m, 강풍반경 200km의 강도가 약한 소형 태풍이다.

문제는 태풍이 19일 오후 3시 서귀포 서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급격히 틀어 제주를 그대로 관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를 관통할 때 예상되는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 990hPa, 최대풍속 초속 24m, 강풍반경 220km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기상도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18일 오후부터는 제주도남쪽먼바다와 제주도남부앞바다에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낚시객과 피서객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태풍정보도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7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에 들어선 제주는 18일까지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내년부터 고교생 교과서로 4·3 교육

교육부, 3·1운동 100주년 연계 평화·인권교육

고교 교과서에 4·3집필기준이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제주4·3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70주년인 지난해 4·3의 내면화·전국화·세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평화·인권 교육과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고교 집필기준 역사 교과서에 4·3 집필기준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2017년 12월 ‘집필기준안’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 7월 27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를 개정해 고시했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가 공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4·3은 한국사 교과서의 4개 대주제 중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대주제의 하위항목(소주제)인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 요소로 포함됐다. 이러한 4·3 집필기준이 반영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올해 말 교육부의 검정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 1일(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집중 4·3 이해교육을 통해 4·3 인권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이용해 각 학교에서 진행한 교육 내용들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4·3공유방(장학마당)에 게시해 4·3 교육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교원 995명이 이수한 ‘전국 교사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는 올해 1120명을 포함해 10년간 1만명을 목표로 진행해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학생이 4·3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항일운동·독립운동가의 자취를 찾는 해외 탐방활동도 시행할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분홍색 지대 뽕내는 ‘대홍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대홍란’이 17일 제주시 한림읍 한 해송숲에서 꽃망울을 터뜨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강희민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멋대로 예산 전용”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는 등 예산업무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센터의 종합감사(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 업무) 실시 결과 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 항내의 세항 및 동일 세항 내 묵내 예산을 변경하면서 이사회 승인의 없이 사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는 등 15건을 자체 규정에 맞지 않게 전용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다른 편성 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에도 2017년 12월 예산부족을 이유로 동일 세항내 2개의 다른 편성 목에서 총 1000만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추진비로 전용했다.

이와함께 인사·보수분야에 있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도 일부 간부급 직원부터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소홀히 했으며, 승진제도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센터 사장에게 행정상 15건(시정 1, 주의 8, 개선 1, 통보 5), 신분상 2명(훈계)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오은지기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통해 6억 추정

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6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해 78건에 6억1600만원을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

가한 도내·외 239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고대로기자

<p>축</p> <p>수 상</p> <p>국무총리표창</p> <p>문대중 이사장</p> <p>용담새마을금고</p> <p>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용담새마을금고의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p> <p>용담2동 민속보존회</p> <p>회장 성락희 외 회원일동</p>	<p>축</p> <p>취 임</p> <p>개인택시 새마을금고 제16대 이사장</p> <p>박기색</p> <p>개인택시 새마을금고 제16대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p> <p>오삼향우회 회원일동</p>	<p>축</p> <p>당 선</p> <p>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p> <p>고병수</p> <p>(본회 이사, 탐동365의원 원장)</p> <p>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p> <p>고씨성주공파 전적공계 종친회</p>	<p>축</p> <p>수 훈</p> <p>제5회 대한민국공무원상 근정포장</p> <p>장승심</p> <p>(더덕초등학교 교장, 애월고 24회)</p> <p>제5회 대한민국공무원상(근정포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p> <p>애월고등학교 총동창회</p> <p>회장 양호선 외 회원일동</p>
--	--	---	--